

남원시 노암동행복센터  
다문화 가정 초청 간담회

남원시 노암동행복복지센터(동장 황금숙)는 1일 주민자치사랑방에서 관내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원시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으로 가족이 함께 목공예(책꽂이만들기)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작품완성을 위해 서로 돕고, 어우러지면서 함께 완성해나가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간담회 참석자 박모(52, 일본)씨는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무척 감사하며, 가족 나들이 나온 것 같은 뜻깊은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암동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지에 6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 결혼이주여성 10명, 이주여성이 30여명이 참석했고, 가족 간담 및 체험활동, 민찬으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입소문 탄 순창장류체험관 인기 실감

체험객 전년비 25% 늘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 성과

순창장류체험관이 올해 체험객이 급증하면서 인기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10월말 현재 장류체험객이 1만 3,720명으로 지난해 같은시기 1만973명 보다 2,747명이 늘어 났다고 밝혔다. 25%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체험객이 급증하는 이유는 순창장류체험관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물론 지역 주요관광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결과다.

실제 순창장류체험관은 단순히 전통 고추장만을 제조하는 체험에서 머물지 않고 순창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토마토고추장소스를 활용한 고추장볼고기떡볶이와 떡볶이 요리체험을 개발하는 등 체험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장류체험관의 체험객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 증가한 가운데 장류체험관을 찾은 학생들이 요리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시골장터에 있을 법한 옛날 튀밥 기계를 설치해 뽕소리를 외치며 몇 배로 부풀어 오른 쌀튀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울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갖지은 고두밥을 이용하여 체험객들이 힘을 합쳐 인절미를 만드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백미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 임실 오수천변에 유채꽃길 조성

임실군 오수천이 오수천변 부지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아름다운 유채꽃길을 조성했다.

오수천은 수량이 많아 아름답지만 그동안 무성한 잡초만 우거져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은 지역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오수천(의경교~금암교)약 1.2km구간 3,700평에 천변부지를 조성, 봄의 전령사 유채꽃을 파종했다.

오수천변에 유채꽃길이 조성됨에 따라 꽃이 만개하는 내년 봄에는 주민들에게 매일 걷고 싶은 산책길을 선사할 전망이다.

특히 의견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유채꽃이 만개, 오수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가는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경 기자

## “8년간 대형산불 0건”... 올해도 예방 만전

### 임실군 가을 건조기 비상근무 태세 돌입

임실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1일 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전 지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군은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명과 12개읍면에 산불감시인력 65명을 선발, 배치해 산불조심 및방화 안 내관,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대비해 읍면 산불감시인력에게 배급된 산불신고 단말기를 통한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의 연계 체계도 갖췄다.

산불 진행상황에 따라 진화대와 감시원, 45세 이하 군청 남자 직원 80명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와 일반직원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임실=진홍경 기자

여기에 전북도 임차헬기 지원체제가 구축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감시반을 동원해 산불발생을 일인식 주범을 색출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 8년간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올해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한건의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 능력이 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 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민65

세 도래자 및 1~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장애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만 20세 이하 1.2급 및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지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군민 위한 봉사 자세” 강조

### 순창군 직원 월례조회서 장명균 부군수 당부

순창군은 1일 군청 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중 직원 월례조회를 가졌다.

월례조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유인숙 주무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풍산면이 현장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김공수 산업계장이 수상했다.

또 매달 우수한 공무원을 뽑는 '이달의 공무원'에는 기획실 이영종 주무관과 경제교통과 손영식 주무관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명균 부군수(사진)는 지난달에 열린 제12회 순창장류축제와 제2회 세계소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전 직원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군수는 또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방재정집행 철저 및 이월 예산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가을철에 부쩍 많아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평소 갖고 있던 공직자상에 대해 언급하며,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상으로는 업무연찬 및 공부하는 자세 확립, 활발한 대외활동, 군민에게 봉사,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 직분에 맞는 업무 처리 등의 자세를 꼽았다.

특히 근무하면서 순창에 대한 애정이 갈수록 깊어지는 데는 능력 있는 공무원과 수준 높은 지역주민,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순창의 산업기반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홍관 감사로부터 2017년 복한의 실상과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안보교육이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보건의료원 경로당 지원사업 지동혈압기 370대 보급·교육 진행

순창군이 관내 전체 마을 경로당에 자동혈압기를 보급하는 등 특색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행복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관내 전 노인당 370개소에 자동혈압기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원은 11월 10일까지 보급을 마치고 하고 의료인력이 노인당을 방문해 자동혈압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자동혈압기를 설치해 체계적 관리로 어르신들의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순창군보건의료원은 특색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행복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고정숙 보건행정계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마을 단위에서는 경로당이 집보다 더 익숙한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면서 “경로당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해 경로당을 집보다 더 편안한 행복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O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